

너무 너무 민망해!

(조증이 끝날 무렵)

급성 조증 상태는 치료받지 않아도 보통 6 - 8개월 정도 후에 스스로 가라앉기 시작한다. 지나치게 흥분했던 마음이 슬슬 풀리면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약간은 눈치 채고, 광풍 노도(狂風怒濤)처럼 떠오르던 머릿속의 상념들은 그 속도가 떨어져 일면 머리가 둔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이 다소 정상화되고 목소리도 원래의 톤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치료 시작 후 약 2주일이 지나면 현저히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환자나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춤을 추는 일도 없어지고 오히려 타인들의 눈치나 행동에 신경을 쓰며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고 자신의 병실에서만 칩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환자는 점점 자신감을 상실하여 부라리던 시선이 초점을 찾지 못 하고 방황한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며 고개를 들지 못 하게 된다. 이 때 환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해 왔던 말이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며 동시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간다.

예의 그 젊은 여자 환자 역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초조하고 불안해져 갔다. 카랑카랑하던 목소리와 안하무인(眼下無人)격이던 행동은 온데간데없고 하루해가 저물어도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기 어려울 정도였다.

면담시간에 그녀는 훌쩍거리며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미쳤던 것이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라며 자신의 앞날을 걱정했다.

그녀는 그녀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했을 때 “미친 놈”이라는 욕설을 퍼붓고 내쫓았을 뿐 아니라 맨 처음 갔던 병원에서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며 “원장 데리고 나와. 이 새끼들아! 뭐 이딴 병원이 다 있어!”라고 외쳐 대서 병원 로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었다.

또 집안에서 아버지가 그녀를 안방에 감금해 두자 벽지와 장판은 물론이고 천장까지도 모조리 뜯어서 집안을 폐허로 만들어 버렸고, 용하다는 무당에게 가서 굿을 하는 도중에는 무당을 쳐다보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줄 알았냐? 이 사기꾼 같으니라고”라며 제단을 몽땅

앞어 버리기도 했었다.

그러던 그녀가 이제는 갖은 걱정에 휩싸여 “차라리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냥 있었으면…”하였다. 면담 도중에 그녀가 스스로를 칭하던 “세상에서 제일 이쁜 ○○이”라는 말을 꺼내니 얼굴이 빨개지며 “너무나 창피하다. 예쁜 사람을 보면 부러웠고 예뻐지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는 내가 왜 그런 착각에 빠졌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며 흐느꼈다.

그녀는 이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지만 정신과에 입원되어 버린 처지에 대한 체감 기류(體感氣流)는 처절하리만치 매서운 것이었다.

조증 상태에서 환자가 극복해 갈 때 스스로 느끼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로 형언하기가 어렵다. 자신과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행동이 심한 장애를 받아 여러 가지의 ‘사건’을 만들던 때의 과대망상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기만 하고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떠오르게 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이 시기에 “죽고만 싶다”는 심경을 토로하곤 한다.

조증 상태에 있을 때 환자가 동분서주하며 떠벌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만큼의 충격량(衝擊量)이 자신의 마음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깊은 웅덩이를 파 놓았음을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다. 신기할 정도로 이 병 또한 정신 분열병처럼 기억력에 대한 장애는 없기 때문이다.

“한 자연인으로서 당신은 죄가 없음. 다만 못된 병으로 인해서 당신이 잠시 잘 못 된 것이기 때문에 병을 미워해야지 당신을 미워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음.”이라는 아전인수 격(格)의 위로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어쨌거나 그녀는 6주간의 입원 생활을 마감하고 총총히 퇴원하였다. 상승 기류를 타고 제멋대로 곡예비행을 하던 그녀는 치료제 리튬(Lithium)의 집중 포화를 맞은 후 황량한 현실 위로 불시착하였다. 그녀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밝은 빛과 인기척을 피해 자꾸 땅속으로 도망치고만 싶어 하는 ‘젖은 쥐’꼴이 되어 버렸다.

바야흐로 조울증의 우울기(憂鬱期)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